

# 최근 經濟動向

## 이 규 철

### I. 주요업종별 동향

#### ◇ 自動車

지난 6월중 자동차 생산은 내수판매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251천대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생산은 소형 및 대형차급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209천대를 기록하였으며, 상용차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한 19천대, 반면 트럭은 5.9% 증가한 21천대에 달하였다.

내수판매는 129천대로 전월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에 비해 중소형 및 다목적 차량을 중심으로 21.7%가 증가하였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전년동월대비 32.4% 증가한 97천대, 다목적형은 70.3% 증가한 38천대의 판매를 기록하였으며, 상용차판매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감소한 31천대에 머물렀다.

한편 자동차 수출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내의 금리와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위축 등으로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13.2%감소한 141천대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수출

이 전년동월에 비해 16.2% 감소한 127천대, 상용차 수출은 전년동월에 비해 33.2% 증가한 14천대를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중남미 73.8%, 아시아 31.8%,서유럽 16.0%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미국 34.8%, 동유럽 80.7%, 태평양지역21.6% 등은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상용차 판매도 버스, 트럭 모두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1.2% 증가한 35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자동차 ◆

(台, %)

	1999.6월		2000.6월		2000.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249,050	9.7	56.5	250,902	△12.6%	0.7%	1,454,807	13.7%
• 出荷	268,084	17.7	40.7	269,514	△1.2%	0.5%	1,494,506	22.4%
(內 需)	105,495	9.9	51.4	129,409	5.1%	21.7%	704,350	30.5%
(輸出)	162,589	23.4	34.5	141,105	△6.3%	△13.2%	790,156	15.9%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 ◇ 電氣 · 電子

6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산업용전자, 전자부품, 가정용 전자가모두 호조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40.1% 증가한 5,717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누계로는 전년동기

대비 35.5% 증가하였다.

산업용 전자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한 1,933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특히 CDMA 및 GSM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 수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 PC의 수출 호조가 6월중에도 지속되어 수출을 주도하였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동월대비 28.6%, 컴퓨터는 66.2%나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다만 유선통신기기는 전반적인 사업부진으로 12.2% 감소하였다.

電子部品은 반도체, 전자관, 수동부품, 기구부품 등 대부분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한 3,15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전자부품수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이 63.2% 증가한 것을 비롯, 전자관 23.0%, 수동부품 81.3% 기구부품 55.9%, 기능부품 8.6%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 전반적인 호조를 보였다.

가정용 전자 역시 세계경기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한 634백만달러에 달하였다. 영상기기는 컬러TV의 증가율이 △4.7%의 부진을 보였으나, VTR이 22.3%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8.5% 증가하였다. 음향기기는 라디오, 카세트, 컴포넌트 등의 호조로 51.6% 증가하였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을 포함한 가정용 회전기기가 11.8% 증가하였으나, 전자렌지 등 전열기기의 수출증가율은 0.5%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一般機械

6월 중 일반기계 生産은 전년동월대비 21.2% 증가하여 금년 들어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건설·광산기계가 31.7%, 금속공작기계가 25.6%, 공기조절장치 등, 냉동공조기계가 23.6%, 섬유기계가 36.4% 증가하여 25.9% 감소한 농업용기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들의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出荷역시 전년동월대비 23.3%가 증가하여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 및 출하의 이러한 호조는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관련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3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2.9%가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건설·광산기계가 23.9%, 냉동공조기계가 181.8%, 섬유기계가 87.1%, 농기계가 44.3%, 금속공작기계가 26.4% 증가해 거의 모든 주요 품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일반기계 부분의 수입도 전년동월대비 61.8%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비중이 40%를 넘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98.7%나 증가한 때문이며, 그 밖에도 미국 62.4%, 독일 46.6%가 각각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편차가 커서 금속공작기계가 191.7%, 섬유기계가 42.8%, 농업용 기계 9.8% 증가했지만, 반면 건설·광산기계가 27.1%, 냉동공조기계가 31.0% 각각 감소했다.

6월 중 일반기계의 수주(受注)는 일반산업용 기계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275,188백만원, 특수산업용기계는 136.4% 증가한 377,221백만원을 나타내어 지난달에

◆ 전 자 ◆  
(百萬 달러, %)

	1999. 6월		2000. 6월		2000.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輸 出	4,081	1.8	42.9	5,718	5.6	40.1	31,133	35.5
(産業用電子)	1,302	8.2	80.9	1,933	1.1	48.4	11,299	75.2
(電子部品)	2,239	△2.1	31.2	3,151	9.2	40.7	15,970	18.0
(家庭用電子)	540	3.9	25.5	634	2.5	17.5	3,864	28.9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이어 호조세가 계속되었다. 기종별로는 건설·광산기계가 전년동월대비 23.7%, 섬유용 기계가 19.6% 증가한 반면, 금속공작기계는 12.5%, 농업용 기계는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기계 수주동향 ◆  
(백만원, %)

	1999. 6월		2000. 6월		2000.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일반산업용	270,974	-	275,188	△1.2	1.6	1,535,888	6.6
특수산업용	159,567	-	377,221	102.3	136.4	1,435,502	39.3

資料 : 통계청 KOSIS DATA, 기종별 신분류 체제 기준임

◇ 鐵 鋼

6월중 粗鋼 生産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한 3,653천M/T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轉爐 生産이 4.0% 증가한 2,012천M/T, 電氣爐 生産은 14.0% 증가한 1,641천M/T에 달하였다. 세계 조강생산은 6월중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한 69,538천M/T를 기록하였다. 북미 및 유럽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동남아시아의 지속적인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CIS, 미국, 일본 등 주요 철강국들의 생산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鐵鋼材 內需는 전년동월대비 20.0% 증가한 3,124천M/T로서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條鋼類 내수는 비수기임에도 H형강을 중심으로 형강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18.8% 증가한 1,555천M/T, 판재류는 열연강판 및 아연도강판을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세 지속으로 23.0% 증가한 1,519천M/T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철강재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한 4,034천M/T를 기록하였다.

철강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한 6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품목별로는 냉연강판이 6월중 182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3.6% 증가, 형강 40백만달러로 48.9%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재(10백만달러, △23.7%), 철근(2백만달러, △85.5%)등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북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동남아, 유럽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한편 철강재 수입은 열연강판의 수입 급증으로 전년동월대비 53.3% 증가한 618백만달러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열연강판(6월중 143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63.1% 증가), 냉연강판(30백만달러, 47.5%), 형강(16백만달러, 68.6%) 등의 수입이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 철 강 ◆  
(百萬 달러, %)

	1999. 6월		2000. 6월		2000.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期比			
조강생산	3,375	-	△2.1	3,653	△3.4	8.2	21,575	9.5
내 수	2,603	△3.5	26.1	3,124	△5.0	20.0	19,108	23.6
수 출	647	23.2	△7.7	669	△13.6	3.4	3,988	22.6
수 입	403	△5.8	35.1	618	13.6	53.3	3,573	50.0

註 : 수출은 통관기준임

資料 :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IS Data

◇ 石油化學

6월중 석유화학산업은 전월에 비해 내수출하가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지표는 작년 동기에 비해 저조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생산의 경우, 시장수요의 전반적인 부진에 따라 전월부터 시작된 업계의 감산이 이어져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한 1,072천M/T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상반기 누계에서도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친 7,135천M/T를 기록하여 연초의 생산증가 추세가

상당히 둔화된 양상이다. 더욱이 하반기 이후 합성수지의 수출만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일 뿐, 합성수지의 내수 및 합성원료의 수출은 지속적인부진이 예상되어 석유화학의 생산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의 경우는 중국의 PE제품에 대한 금수(禁輸)조치에 따라 수출출하가 전월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출하의 견조한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내수의 경우에는 합성원료의 내수출하가 전월까지의 침체기조에서 벗어나 상승추세로 반전(反轉)하였으나 이는 전월 실적의 부진에 따른 상대적인 수치로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의 경우에는 금년 4월까지 지속되었던 합성수지의 수출부진이 5월에 들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비롯된 예상밖의 PE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매우 부진하였기 때문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 내는데 그쳤으나, 금년도 내수출하가 작년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향후 수출부문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 석유화학 ◆

(千M/T, %)

	1999. 6월			2000. 6월			2000.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1,167	6.6	6.8	1,072	△0.3	△8.1	7,135	0.5
• 出荷	1,123	△4.2	1.2	1,076	0.3	△4.2	7,159	1.0
(內 需)	676	△4.0	21.6	630	6.1	△8.9	4,092	1.8
(輸出)	447	△4.5	△19.3	446	△6.9	△0.4	3,067	0.1

◇ 非金屬鑛物

금년 6월 중 시멘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한 5,025천M/T로 증가세가 6개월

째 이어 지면서 증가폭은 전월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전월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 생산이 계절적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한 5월에 정점을 이루다가 우기(雨期)와 혹서(酷暑)의 영향으로 6월부터 8월까지의 점차 줄어드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수는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한 4,719천M/T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오히려 6.0% 감소하여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6월까지의 내수도 22,616천M/T에 머물러 전년동기대비 8.4%의 증가세를 기록해 지난달 보다 0.8p포인트 감소하였다. 전월보다 내수가 감소한 것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내수 감소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2년째 지속되었던 증가세가 전월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금월에는 감소폭이 늘어 15.6% 감소한 281천M/T에 그쳤으며, 전월대비로도 5.7%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수출누계도 11.4% 증가에 머무른 1,979천M/T에 그쳤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수출 감소(35천M/T)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년들어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캐나다, 가나, 중국 등지에 대한 수출은 반제품인 클링커가 주종을 이루어 완제품 수출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활발하여 209천M/T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의 수출이 70천M/T에 이르렀다. 수입은 지난달 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47천M/T을 기록하였다.

한편 지난달 13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건축허가면적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25.3%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전월의 건축허가면적 감소세의 주요인이었던 주거용 건축부문이 11.4%의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공업용 건축부문이 23.0%, 상업용 부문이 69.0%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건축허가면적이 금월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꾸준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비금속광물 ◆ (千M/T, %)

	1999. 6월		2000. 6월		2000. 1~6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4,741	△7.3	16.6	5,025	△5.6	6.0	24,436	7.8
• 出荷	4,927	2.6	0.7	5,000	△6.0	1.5	24,595	8.0
(內需)	4,474	0.2	△6.5	4,719	△6.0	5.5	22,616	8.4
(輸出)	333	△1.2	202.7	281	△5.7	△15.6	1,979	11.4

◇ 纖維

6월중 纖維輸出은 금년들어 계속되는 선진국 시장의 경기호황과 중국, 동남아, 중남미 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한 1,766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6.9% 증가한 kg당 5.55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섬유원료는 아크릴, 폴리에스터 섬유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5.0% 증가한 69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섬유사는 나이론, 폴리에스터 등 화섬F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14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섬유직물은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을 제외한 전직물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5.7% 증가한 946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의류 중심의 섬유제품 수출은 남성자켓, 웨타, 양말, 유아복 등, 직·편물제 의류 및 기타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한 608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수출은 폴리에스터 F사(絲) 및 직물, 편직물 및 기타직물 중심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한 421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편직물 및 직물제 의류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349백만달러를, 일본으로의 수출도 폴리에스터직물, 타이어코드, 편직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한 12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내수(內需)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원자재 수입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2% 증가한 39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으로 부터는 중저가중심의 화섬직물, 혼방직물 편직물 및 의류 등이 증가하였고, 이태리, 일본 등의 섬유선진국으로 부터는 바지, 자켓 등 고급의류 수입이 증가하였다.

◆ 섬유수출 ◆ (百萬달러, %)

	1999. 6월		2000. 6월		2000.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原 科	56	△5.8	△8.9	69	△8.4	25.0	437	33.7
絲	128	△0.2	2.9	142	△2.7	10.8	829	17.3
織 物	819	0.3	1.8	946	△1.6	15.7	5,023	17.4
製 品	548	18.9	3.6	608	18.3	10.9	2,884	9.7
計	1,551	5.9	2.1	1,766	4.0	13.9	9,173	15.5

◇ 造船

금년(2000년) 상반기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대부분의 선종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탱커 및 컨테이너선의 세계 신조선 발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20.9% 증가한 192척 659만 CGT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연간 수주실적인 660만 CGT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수출선은 전년동기대비 319.5% 증가한 192척 657만CGT, 전년동기에 1척의 수주도 없었던 국내선은 2척 2만CGT를 기록하였다.

2000년 상반기 건조실적은 꾸준한 생산성 증가와 삼성중공업 등, 구조조정중인 일부 조

선소의 본격 가동 등에 힘입어 컨테이너선 및 LNG선의 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9.7% 증가한 98척 327만CGT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6월말 수주잔량은 전년동기 대비 58.4% 증가한 482척 1,574만CGR을 보유하여 전년도말 수주잔량인 1,243만CGT을 초과하였으며, 이로써 현대, 삼성, 대우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약 2년6개월 정도의 조업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 조 선 ◆  
(千G/T. %)

	1999. 6월		2000. 6월			2000. 1~6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輸 出	993 (6,605)	73.5	4,077	62.1	310.4	6,593	320.9	26.7
油 槽 船	1,176 (4,963)	△12.5	1,775	18.9	50.9	3,267	29.7	27.0
貨 物 船	9,940 (12,430)	△2.6	15,742	17.2	58.4	15,742	58.4	21.9

이러한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 급증은 세계 신조선 시장에서의 발주 급증에 따른 신조선 수요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99년 1,899만CGT을 기록, 98년 대비 약 1%의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1,120만CGT의 수주량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73.2%의 큰 폭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발주 호조는 99년 이후 세계경제 활동의 호조 및 아시아지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운시황의 호전, 낮은 선가(船價)에 따른조기발주 물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신조선 발주 급증세는 거의 전선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5월말 현재컨테이너선이 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한 360만CGT, 탱커가 전년동기대비 220% 증가한 320만

CGT, 벌크캐리어가 전년동기대비 145.5% 증가한 270만CGT를 기록하였다. 특히 국내 조선업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발주와 탱커부문에서 VLCC, Suezmax급, Aframax급 등의 발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선과 탱커의 발주규모는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벌크캐리어의 발주규모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여 VLCC도크 7기 등, 대형 도크를 다소보유한 국내 조선업체의 상반기 수주 급증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선종도 탱커와 컨테이너선 등에서 LNG선, 여객선, 케이블 설치선, 원유저장운반선(FPSO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shore) 등으로다 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 海 運

금년 6월중 乾貨物運賃指數 MRI(월평균)는 전월의 240.7에서 1.8포인트 상승한 242.5를 나타내어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세계 조강생산 회복과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철강수요 증가, 세계곡물 물동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서양과 태평양 수역 모두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Capesize급은 일본의 철광석 및 석탄 수요 증가, 유럽의 브라질산 철광석 수요 증가로 태평양, 대서양 지역 모두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Baltic Capesize Index는 금년 1월초 1,772포인트에서 6월말 2,150포인트를 기록하며 상반기 동안 21%나 상승하였다.

Panamax급은 중국과 중동지역의 곡물수입 증가, 케이프사이즈급의 강세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US Gulf-Japan 항로 곡물 운임의 경우, 6월 평균 톤당 23.3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중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dysize급은 태평양 수역에서는 동남

아시아의 철강수입 증가로 강세를 보였고, 대서양 수역에서는 남미 곡물 수출 시즌에 따른 선복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용선활동은 다소 둔화되었다. 향후 운임은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Handysize급의 둔화 및 Panamax급의 선복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및 석탄의 물동량 증가 전망 등에 따라 Capesize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다.

6월중 탱커 운임지수 WS(World Scale)는 전월의 108.9보다 1.2포인트 하락한 107.7을 기록하였다. 금년 들어 5월까지 계속된 상승세가 6월 들어 다소 주춤해 졌으나 여전히 원유 수입 증가, 용선주들의 신형선 선호도로 VLCC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금년 상반기 동안 91.3% 증가하였다. VLCC 운임은 신형선 수요 증가와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용선활동 및 원유수입이 증가하여 1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 5월에는 WS100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Persian Gulf-East 운임은 WS115까지 상승하였다.

Suezmax 및 Aframax 운임도 물동량 증가와 신형선 수요 증가로 전항로에서 금년 상반기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Suezmax선의 서아프리카-미국 항로는 5월에 WS145까지 상승하였고, Aframax선의 북해 항로와 지중해 항로는 WS200과

WS170대 까지 급상승 하였다.

향후 운임은 중국 등, 극동지역의 수요 증가와 신형선 수요의 지속, 원유 물동량 증가 등에 힘입어 VLCC와 Aframax선을 중심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 Ⅱ. 대외거래

### 1. 輸 出

금년 6월중 수출은 153.1억달러로 경공업 제품 수출이 4.5% 감소한 데다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증가세도 5월의 33.8%에서 6월의 25.0%로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전월의 28.5%에서 19.4%로 하락하였다.

지난 6월중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경공업 제품은 직물(14.0%), 의류(10.6%), 섬유사(12.5%) 및 종이류(10.8%) 등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금(金)수출(△67.4%)이 크게 감소하고 타이어·튜브(△19.1%)의 수출도 부진하여 전년동월비 4.5% 감소한 28.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의 자동차(△17.6%)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기기(86.1%), 가전제품(25.0%), 반도체(28.7%), 기계류 및 정밀기기(10.1%) 등의 품목에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25.0% 증가한 111.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은 반도체가격이 금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격을 시현하는 등, 중화학제품 수출의 호조로 전년동월비 23.6% 증가한 14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2. 輸 入

6월중 수입은 131.6억달러로 국제유가 상승 및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외의 수요증대로 원자재(33.7%)

對 外 去 來  
(억달러, 前年同期比, %)

	98年	99年	2000.5月	6月	7月
· 通關輸出 (增減率)	1,323.1 (△2.8)	1,436.9 (8.6)	146.8 (28.5)	153.1 (19.4)	145.2 (23.6)
· 通關輸入 (增減率)	932.8 (△35.5)	1,197.5 (28.4)	132.8 (40.4)	131.6 (29.0)	137.0 (40.1)
· 輸出入差	390.3	239.3	14.0	21.5	8.2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

品 目 別 輸 出

(通關基準, 억달러)

	99. 6月	99. 1~6月	2000. 5月	6月	2000. 1~6月
全 體 輸 出	128.2 (11.4)	660.0 (△1.7)	146.8 (28.5)	153.1 (19.4)	828.4 (25.5)
重化學工業製品	89.6 (13.7)	466.2 (4.7)	108.4 (33.8)	111.9 (25.0)	609.8 (30.8)
化 工 品	7.1 (△2.7)	41.8 (△10.2)	10.9 (57.0)	10.8 (51.4)	60.2 (44.1)
鐵鋼 및 金屬製品	9.5 (△1.7)	49.1 (△17.0)	10.9 (33.7)	10.0 (5.2)	58.4 (18.8)
機械類와 精密機器	10.6 (25.5)	55.8 (14.2)	10.7 (6.3)	11.7 (10.1)	57.2 (2.5)
電氣電子製品	35.9 (41.3)	201.9 (20.6)	51.0 (47.0)	53.4 (48.9)	292.2 (44.7)
( 家 電 製 品 )	4.8 (25.3)	27.0 (3.3)	6.0 (28.8)	6.1 (25.0)	37.0 (37.2)
( 半 導 體 )	14.6 (25.5)	90.3 (12.8)	17.6 (19.3)	18.8 (28.7)	98.8 (9.5)
( 情 報 通 信 機 器 )	12.6 (75.4)	63.6 (45.3)	22.6 (90.2)	23.4 (86.1)	129.9 (104.4)
乘 用 車	10.1 (47.4)	42.3 (13.0)	9.0 (14.0)	8.3 (△17.6)	49.0 (16.0)
輕 工 業 製 品	30.2 (7.8)	149.0 (△12.8)	28.1 (10.5)	28.9 (△4.5)	152.5 (2.3)
織 維 絲	1.3 (2.9)	6.9 (△20.3)	1.4 (14.8)	1.4 (12.5)	8.2 (18.4)
織 物	7.2 (0.0)	37.7 (△9.7)	8.4 (15.7)	8.2 (14.0)	43.5 (15.3)
衣 類	4.7 (△0.5)	21.8 (3.2)	4.2 (9.2)	5.2 (10.6)	23.7 (8.8)
타 이 어 · 튜브	1.4 (△1.9)	7.5 (△4.6)	1.2 (3.6)	1.2 (△19.1)	7.4 (△2.1)
금	6.2 (21.5)	22.9 (△41.9)	1.9 (△35.4)	2.0 (△67.4)	7.9 (△65.4)
종 이 류	1.5 (14.4)	8.6 (0.3)	1.9 (29.6)	1.7 (10.8)	10.5 (21.6)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品 目 別 輸 入

(通關基準, 억달러)

	99. 6月	99. 1~6月	2000. 5月	6月	2000. 1~6月
全 體 輸 入	102.0 (31.7)	543.3 (15.1)	132.7 (40.4)	131.6 (29.0)	785.9 (44.7)
原 資 材	47.0 (26.2)	252.5 (6.2)	62.3 (42.9)	62.9 (33.7)	385.3 (52.6)
原 油	11.8 (25.8)	57.1 (△4.7)	17.1 (84.1)	18.9 (60.2)	117.1 (105.2)
輕 工 業 原 料	4.0 (27.3)	20.3 (6.1)	4.5 (28.9)	4.2 (4.3)	24.7 (21.8)
化 工 品	8.1 (25.1)	45.6 (10.9)	10.2 (26.8)	9.7 (20.2)	58.6 (28.6)
鐵 鋼 材	3.5 (37.1)	20.8 (9.0)	4.8 (28.8)	5.2 (47.8)	31.1 (49.4)
資 本 財	40.1 (38.2)	217.4 (24.9)	55.8 (49.9)	55.1 (37.3)	323.9 (49.0)
機械類와 精密機器	12.5 (53.3)	60.5 (11.9)	16.2 (55.6)	16.4 (31.6)	93.8 (55.1)
電氣電子製品	25.1 (38.2)	141.6 (35.9)	36.2 (52.0)	35.1 (39.7)	209.9 (48.2)
( 半 導 體 )	12.9 (20.3)	75.9 (29.4)	16.1 (30.2)	15.8 (22.7)	93.4 (23.1)
( 情 報 通 信 機 器 )	5.3 (96.8)	28.0 (75.0)	10.8 (123.4)	10.2 (93.0)	62.1 (121.9)
消 費 財	14.9 (33.3)	73.4 (22.0)	14.6 (6.4)	13.6 (△8.4)	76.7 (4.6)
穀 物	1.9 (△19.8)	11.3 (△19.5)	2.2 (15.6)	1.9 (0.2)	12.0 (5.6)
直 接 消 費 財	2.8 (57.4)	17.1 (60.2)	4.2 (13.9)	3.8 (35.2)	22.7 (33.4)
耐 久 消 費 財	8.8 (46.0)	38.6 (30.0)	6.3 (△10.1)	5.8 (△34.2)	31.1 (△19.4)
( 金 )	6.3 (46.3)	24.5 (30.1)	2.8 (△23.4)	2.3 (△62.9)	11.2 (△54.1)
( 家 電 製 品 )	0.6 (57.5)	3.0 (25.3)	1.0 (93.8)	1.0 (72.6)	5.4 (80.2)
非 耐 久 消 費 財	1.3 (39.3)	6.3 (12.5)	1.9 (74.1)	2.1 (57.9)	10.9 (72.3)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와 자본재(37.3%)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소비재(△8.4%)수입이 감소하여 증가율은 지난 5월의 40.4%에서 29.0%로 둔화하였다.

6월중 품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소비재는 비내구소비재(57.9%), 가전제품(72.6%), 직접소비재(35.2%)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금(金)수입이 △62.9%나 감소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8.4% 감소한 13.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원자재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입(60.2%)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철강재(47.8%)와 화공품(20.2%)등의 주요 원자재 수입도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33.7% 증가한 62.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본재는 수출 및 내수호조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기(93.0%), 반도체(22.7%), 기계류 및 정밀기기(31.6%) 등을 중심으로 내수용수입이 54.8%로 크게 늘어나 전년동월비 37.3% 증가한 55.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7월중 수입은 고유가와 수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품류의 수입 증가세 지속으로 지난 2월(57.5%) 이후 계속 감소하던 수입증가율이 반등하여 전년동월비 40.1% 증가한 137.0

地域別輸出入

(通關基準, 억달러)

		99.6月	2000.5月	6月	2000.1~6月
先進國	輸出 (增減率)	66.0 (24.4)	75.0 (29.5)	78.3 (18.7)	416.7 (25.6)
	輸入 (增減率)	62.4 (28.7)	75.9 (31.0)	75.3 (20.8)	439.0 (32.0)
	輸出入差	3.6	△0.9	3.0	△22.4
美國	輸出 (增減率)	26.3 (42.1)	31.8 (35.2)	32.2 (22.3)	172.2 (31.3)
	輸入 (增減率)	21.8 (19.4)	26.3 (21.5)	24.8 (13.9)	147.5 (21.4)
	輸出入差	4.5	5.5	7.4	24.7
日本	輸出 (增減率)	12.0 (27.4)	16.7 (44.2)	16.9 (41.0)	97.8 (44.3)
	輸入 (增減率)	19.9 (49.8)	26.3 (50.9)	27.2 (36.8)	158.8 (51.2)
	輸出入差	△7.9	△9.5	△10.3	△60.9
EU	輸出 (增減率)	19.0 (26.5)	20.7 (31.8)	21.8 (14.6)	112.2 (21.0)
	輸入 (增減率)	11.3 (18.8)	13.5 (27.9)	14.0 (23.9)	78.6 (31.8)
	輸出入差	7.8	7.2	7.8	33.7
開途國	輸出 (增減率)	62.2 (0.3)	71.8 (27.5)	74.8 (20.2)	411.7 (25.4)
	輸入 (增減率)	39.7 (36.7)	56.9 (55.2)	56.2 (41.8)	346.9 (64.7)
	輸出入差	22.6	14.9	18.6	64.8
東南亞	輸出 (增減率)	28.6 (26.2)	33.7 (30.1)	33.7 (17.7)	191.8 (25.1)
	輸入 (增減率)	12.1 (35.1)	20.5 (61.9)	17.4 (43.4)	119.9 (66.0)
	輸出入差	16.5	13.2	16.3	71.8
中國	輸出 (增減率)	11.8 (16.2)	16.7 (51.6)	16.5 (39.6)	87.1 (38.8)
	輸入 (增減率)	7.3 (47.3)	10.7 (57.0)	10.8 (49.1)	61.5 (62.2)
	輸出入差	4.5	6.0	5.7	25.6
中國東	輸出 (增減率)	5.9 (10.7)	6.2 (27.5)	7.0 (19.0)	36.6 (25.3)
	輸入 (增減率)	11.1 (17.0)	18.1 (99.0)	19.2 (72.8)	116.4 (112.6)
	輸出入差	△5.2	△11.9	△12.2	△79.8
中南美	輸出 (增減率)	7.3 (△27.6)	7.5 (2.1)	7.3 (△0.9)	46.2 (14.0)
	輸入 (增減率)	2.9 (37.5)	2.8 (20.8)	2.5 (△12.8)	16.1 (20.8)
	輸出入差	4.5	4.7	4.8	30.0

주)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 3. 地域別 輸出入

6월중 對先進國 수출은 미국(22.3%), 일본(41.0%), EU(14.6%)등에 대한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비 18.7% 증가한 78.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개도국 수출은 동남아(17.7%), 중국(39.6%) 등에 대한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동월비 20.2% 증가한 74.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地域別 輸入을 살펴보면, 對先進國 輸入은 미국(13.9%), 일본(36.8%), EU(23.9%)등에서 크게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20.8% 증가한 75.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對개도국 수입도 동남

아(43.4%), 중국(49.1%), 중동지역(72.8%) 등에서 크게 둔화되어 전년동월비 41.8% 증가한 56.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 수출입차는 대일교역(△10.3억달러)에서는 무역적자가 지속되었으나, 미국(7.4억달러), EU(7.8억달러) 교역에서는 수출증가 및 수입둔화로 흑자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중동교역(△12.2억달러)은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적자가 계속되었으나, 동남아(16.3억달러), 중국(5.7억달러) 교역에서는 수출호조로 흑자가 계속되었다.

### 國 際 收 支

(억달러)

	99.6月	99.1~6月	99年間	2000.5月	6月pJ	2000.1~6月
經常收支	23.7	122.0	244.8	15.9	14.6	44.0
商品收支	27.6	146.7	283.7	19.5	22.8	72.0
서비스收支	△2.1	△5.3	△6.5	△3.3	△5.2	△18.1
所得收支	△3.2	△29.4	△51.6	△0.1	△2.4	△13.0
經常移轉收支	1.3	9.9	19.2	△0.2	△0.6	3.1

註)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 資 本 收 支

(억달러)

	99.6月	99.1~6月	2000.5月	6月pJ	2000.1~6月	
資本收支(A+B)	△19.0	△2.9	6.9	8.3	127.3	
A. 投資收支	△18.4	△0.7	7.2	8.5	128.8	
形態別	直接投資	5.7	13.4	11.8	1.3	20.7
	證券投資	△4.0	49.3	△10.5	4.8	83.0
	其他投資	△20.1	△63.4	5.9	2.4	25.1
主體別	資產(內國人投資)	△1.9	△27.7	△4.4	△17.9	△65.5
	直接投資	△1.4	△19.0	△3.2	△3.8	△22.7
	證券投資	1.7	△0.8	△0.5	△12.6	△16.0
	其他投資	△2.1	△7.9	△0.7	△1.5	△26.8
別	負債(外國人投資)	△16.6	27.0	11.7	26.4	194.3
	直接投資	7.1	32.4	15.1	5.2	43.4
	證券投資	△5.6	50.1	△10.0	17.4	99.0
	其他投資	△18.1	△55.5	6.7	3.9	51.9
B. 其他資本收支[資本移轉]	△0.6	△2.2	△0.3	△0.2	△1.5	

---

#### 4. 國際收支

6월중 經常收支는 14.6억달러의 흑자로 흑자규모가 전월(15.9억달러)보다 1.2억 달러 감소하였다. 상반기중 경상수지는 44.0억달러 흑자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의 122억달러보다 78.1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지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여 22.8억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으나, 상반기중 상품수지는 72.0억달러의 흑자로 흑자규모가 전년동기의 146.7억달러보다 74.7억달러로 감소되었다.

서비스수지는 분기말월의 특허권 사용료 및 컨설팅료의 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

월의 3.3억달러에서 5.2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소득수지는 분기말월의 대외이자 지급 증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송금 등으로 적자 폭이 전월의 0.1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확대되었다.

6월중 資本收支는 예금은행들의 해외단기채 매입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자금 및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증가 등으로 8.3억달러의 유입초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중에는 127.3억달러의 유입초를 기록하였다.

形態別로는 직접투자가 1.3억달러, 증권투자 4.8억달러, 기타 투자는 2.4억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